

2014년 4분기 글로벌 분기 보고서

너리시 더 칠드런,
바이타밀 (VitaMeal) 누적 기부
4억끼 달성

기아에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매일 줄 수 있다면, 또 이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기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일까요. 뉴스킨의 세일즈 리더, 고객, 임직원의 ‘선의의 힘’으로 전 세계 영양 실조 아이들에게 바이타밀 4억끼의 놀라운 기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런던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누적 4억끼 기부라는 기념비를 수립한 것은 뉴스킨 설립 30주년의 해를 마감하는 화룡점정”이라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뉴스킨의 사명인, ‘선의의 힘 (Force for Good)’이 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누적 4억끼 기부라는 기념비는 전 세계 뉴스킨 회원, 고객, 임직원의 헌신과 선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바이타밀 기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너리시 더 칠드런은 어린이 기아와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리시 더 칠드런은 균형잡힌 영양 구호식품인 바이타밀을 뉴스킨이 개발 및 제작하고, 전 세계 회원들과 고객, 임직원이 구매해서 기부하고, 이를 제3의 전문 구호 단체가 영양결핍과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 뉴스킨은 전 세계 아동의 기아와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리시 더 칠드런 활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아동 영양 전문가, 켄 브라운(Ken Brown) 박사와 뉴스킨이 공동으로 개발한 바이타밀(VitaMeal)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25가지 이상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담은 균형잡힌 식사로서, 현재 4억끼가 넘는 바이타밀을 영양 실조 아동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4년 4분기 포스 포 굿 하이라이트

뉴스킨 포스 포 굿 재단
필리핀 신규 학교 건설 자금 지원



2013년 11월 8일,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하이옌으로 인해 사마르주와 레이테주가 거의 초토화되었고, 약 6,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집을 잃고 굶주린 채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풍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뉴스킨 포스 포 굿 재단은 싱가포르 적십자와 협력하여 약 \$300,000를 기부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태풍으로 큰 재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알부에라 지역 어린이들의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기부금이었습니다. 하이옌과 같은 큰 태풍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포스 포 굿 재단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칼린가탄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는 15개 교실에 최대 27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다시 큰 태풍이 발생할 경우 대피소 및 구호센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지진과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되어 있어 연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린가탄 초등학교 개교식이 2014년 11월 5일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 벤자민 윌리엄 사무총장, 라몬 데 라 서르나 알부에라 시장, 알부에라 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뉴스킨 세일즈 리더들과 임직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학교 입학생들에게는 공책, 마커펜, 색연필이 담긴 뉴스킨 문구 선물백이 증정되었습니다. 뉴스킨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 마케팅 자스민 양 부사장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하이옌 태풍 이후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4분기 포스 포 굿 하이라이트

엠마누엘 반다씨 가족, 가족자립농업학교(SAFI) 덕분에 경제적 자립에 성공

엠마누엘 반다씨와 로린 반다씨는 가족자립농업학교(SAFI)를 졸업한 후 가족의 경제적 자립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다씨 부부는 본인 가족의 삶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자립농업학교(SAFI)에서 배운 작물재배 등의 농업 선진 기술을 46명의 다른 이웃 농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 반다씨 부부와 세 아이들(11살 레비, 5살 페이스, 4개월인 웨스티)은 매일 균형잡힌 세 끼 식사를 하며 가족이 직접 재배한 과일로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자립농업학교(SAFI)에서 배운 과수재배 기술로 수확하게 된 과일을 팔아 소득 또한 얻고 있습니다.

반다씨 가족은 지난 재배철에 옥수수 83포대, 땅콩 17들통, 대두 6포대, 콩 5kg를 수확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더해 소 2마리, 돼지 8마리, 염소 12마리, 닭 13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수확한 작물 중 다음 수확철까지 사용할 옥수수 10포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다씨 가족의 단기 목표는 2.75에이커의 땅에서 옥수수 약 205포대의 수확을 거두고 버섯 수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범중국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서는 255명의 선천성 심질환 어린이에게 수술을 제공하고 8,123 명의 어린이에게 무료 심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뉴스킨 필리핀은 아동 건강 개발 재단을 통해 2014년 4분기에 2명의 어린이에게 심장 수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범중국 소액금융 펀드는 680가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펀드 출범 이래, 6,800가구가 2008년 쓰촨성 지진 사태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소액 창업지원 금융을 대출받았습니다.



2014년 4분기 너리시 더 칠드런 하이라이트

바이타밀(VitaMeal), 말라위 어린이에게 희망 나눔



NOURISH THE CHILDREN®
AN INITIATIVE OF NU SKIN ENTERPRISES

말라위(Malawi) 마친가(Machinga) 지역에 사는 4살 어린이 거트루드 엠웬벨(Gertrude Mwembele)은 부모님을 두 살에 여의고 먹을 것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이타밀과 뉴스킨의 너리시 더 칠드런 덕분에 거트루드는 이제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늘고 키도 몇 인치 자랐습니다. 현재 거트루드는 바이타밀을 배급받는 132명의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고, 2년 전과는 달리 그의 미래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수혜지	식사 제공량 (끼)
말라위	7,797,720
중국	2,700,000
아이티	1,980,000
필리핀	1,152,000
서아프리카	1,080,000
니카라과	720,000
가이아나	360,000
자메이카	360,000
온두라스	360,000
캄보디아	360,000
아르메니아	180,000
짐바브웨	108,000
총계	17,157,720

26%

2014년 3분기 대비 바이타밀
기부 증가율

190,641

4분기* 동안 하루 평균
바이타밀을 배급받은 어린이들의 수
*2014년 10월~12월

405,463,380

너리시 더 칠드런을 통해
2002년부터 후원된 바이타밀 누적 수량